

상월원각조사 탄신 102주년 봉축법요

축 사

계사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추워가는 계절이지만 마음의 훈훈함으로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갑오년 새해를 이틀 앞 둔 오늘, 대한불교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조사님의 탄신 102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봉축법요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월원각 조사께서는 해방과, 6.25라는 민족의 큰 혼란을 겪으면서도 이곳 구인사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불법홍포를 이어 가셨습니다.

그간 맥이 끊겨오던 한국 천태종을 종명으로 하여 주경야독의 종풍으로 정진하며 불법홍포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를 3대 지표로 삼아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하여 오늘의 천태종단으로 거듭나는 주추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올곧게 승계하신 총무원장 스님의 깊은 덕화와 종단사부대중의 신심 있는 활동은 천태종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계기라고 많은 불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정신문화의 발달에 따라 세계문명이 발달했듯이 현대의 문명은 지고한 정신문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문화의 정점에 종교가 있고 종교의 가르침에서 문화예술

은 물론 생활의 질서와 인류의 근본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천태종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견인하며 종교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주경야선의 수행 전통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실행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태종의 주경야선 종풍이 단단한 정진력으로 승화되어 지혜와 자비가 원융한 세상을 구현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희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사회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불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자비광명 속에서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12월 3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